

# 책 한 권에 담은 '광주발' 남도여행

광주시, 나주·담양 등 5개 시·군 지역 연계관광 책자 공동 발간 6개 주제별 여행 동선 제안

광주시와 인접 5개 시·군을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6가지 관광 프로그램이 제시됐다.

광주시와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등 인접 5개 시·군을 지역별 연계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책자 '광주랑 남도가자'(사진)를 공동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책자는 지난해 체결한 '문화관광 지원·협력 협약'에 따라 지역별 관광자원의 상호 공유와 홍보를 통해 남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발간됐다.

책자에는 관광객의 동선을 고려해 광주를 기점으로 광주의 관광지를 둘러본 후



인접 5개 시·군의 특색있는 관광지까지 연계해 여행할 수 있도록 6개의 주제를 담았다.

먼저, 광주는 '문화예술 향기에 취하다'라는 주제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거리, 광주폴리,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별장과 나비아 공동가자, 무등산보리밥거리를 소개한다.

또 나주는 '돌담길 따라 시간여행을 하다'라는 주제로 국립동근대역사문화마을, 빛고을공예장작촌을 거쳐 나주의 금성관, 목사내야, 황포돛배, 나주영상테마파크, 국립나주박물관, 영산포 흥어축제, 고평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담양은 '대숲 나에게 말을 걸다'라는 주제로 광주의 무등산국립공원, 광주호수생태원을 거쳐 담양의 소쇄원, 창평솔로시티, 죽녹원, 관방제민, 메타세쿼이아길, 금성산성, 담양대나무축제, 메타프로방스를 관광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화순은 '청산에 살어리랏다'라는 주제로 광주의 운림골미술관거리, 전통문화관을 거쳐 화순의 화발적벽, 운주사, 화순고인돌유적지, 김삿갓문화동산, 쌍봉사, 백

아산 하늘다리, 힐링푸드 페스티벌, 두부보쌌요리를 소개한다.

함평은 '나비 따라 그곳에 가면...'이라는 주제로 광주의 1913송정역시장, 월봉서원을 거쳐 함평의 돌머리해수욕장, 함평엑스포공원, 함평향교, 자연생태공원, 양서파충류생태공원, 나비축제, 한우비빔밥 테마거리를 추천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은 '숲으로 마음을 치유하다'라는 주제로 광주의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광주박물관을 거쳐 장성의 필암서원, 홍길동테마파크, 평립담장미공원, 축령산 편백숲, 금곡영화촌, 남창계곡과 장성홍길동축제, 삼채요리를 소개한다.

이번 광주랑 남도가자 책자는 광주를 비롯한 인접 5개 시·군을 방문한 방문객이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 1층 안내소와 광주시가 운영하는 관광안내소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연일 폭염... "내 집 앞 나무 물주기 동참을"

광주시 가로수 물주기 작업

광주시는 폭염과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도심 나무와 화초류 등에 긴급 물주기 작업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주요 도로변 가로수 등 조경수목과 꽃길 조성지 화초류 등에 대한 폭염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가로수, 공원 등에 대해서도 물주기 작업을 하고 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달 하순부터 폭염이 지속되자 우선 각 구청과 공원관리사업소 등에 긴급 물주기 작업 대책을 세워 실시토록 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자체 보유 차량을

포함해 소방차와 물차를 임차하는 등 총 40대의 관수차량을 운용 중이며, 가뭄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최근 심은 나무 일부에는 물주머니 640여 개를 설치해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기상상황을 고려해 확대할 계획이다.

노원기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당분간 비 소식이 없고 폭염이 지속된다는 기상상황에 도시정원사업으로 식재한 꽃과 수목 등에 피해가 우려된다"며 "내 집 앞 가로수와 가로화단에 대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시 공공데이터 창업대회' 참가자 모집

광주시는 정부3.0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6년 광주광역시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며, 공모부문은 광주시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다.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7년 이내의 창업기업이면 참가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광주시 공공데이터포털(http://data.gwangju.go.kr)이나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오는 5일부터 9월23일까지 이메일

(hwahaha@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거쳐 아이디어 기획 4개와 제품 및 서비스 개발 4개를 최종 선정하며 광주시장상과 함께 시상금 총 1200만원(최우수상 4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부문별 최우수작 1팀은 중앙대회 본선에 추천해 법정부처 '왕중왕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중앙대회 최종 결선에서 수상한 10팀에는 대통령상(2팀), 국무총리상(2팀) 등 국가포상과 함께 총 8600만원(대상 2000만원) 규모의 사업자금이 지원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도시철도공사, 국제품질경영 재인증

광주도시철도공사(사장 정선수)가 도시철도운영 업무에 관한 '국제품질경영 시스템(ISO9001) 인증 사후심사에 합격, 국제적인 품질관리능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

'ISO9001'은 ISO(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 평가인증 제도로, 매년 까다로운 사후심사를 통해 인증자격 유지여부를 확인한다.

공사는 정부3.0 시책에 따라 지난해 7월 ISO9001 인증을 받았으며 이번 사후심사 합격으로 앞으로 1년간 인증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정선수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공사품 질경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자량이 되는 공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광주도시공사, 지역아동 스के이트 무료 교실

광주도시공사(사장 조용준)는 여름방학을 맞아 무지개지역아동센터 원생들과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8월 한달 동안 스케이팅 무료강습을 실시한다.

광주무지개 아동센터는 저소득층가정, 차상위층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 자녀 등이 바른 교육으로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하는 단체이다.

광주도시공사는 이 단체 원생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해 주 3회 무료 강습을 실시하고, 또 강습이 없는 날에는 오후 6시까지 자유롭게 입장해 스케이팅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다문화 이주여성에게도 빙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실내빙상장에서는 아동센터 원생들과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스케이팅화를 포함한 일체의 장비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도시공사 조용준 사장은 "매년 여름방학이면 저소득층 자녀들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스케이팅 무료 강습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수영장까지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전국 지자체들 "청년축제 눈이 가네"

부산시·전북도 등 방문

청년업무 교류 틀 마련

광주시가 추진한 세계청년축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청년은 영웅이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2016 세계청년축제에는 충청북도, 전라북도, 부산시 등의 지자체·산하기관 관계자들이 찾아와 청년축제를 관심있게 지켜봤다.

올해 청년축제를 찾은 지자체들은 "광주의 사례를 보면서 전북에서도 청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부서를 신설한 이후, 그동안 수차례 광주시를 방문해 지자체 간 교류의 틀을 구축해 왔다."

이들 지자체들은 이번 청년축제에서 문화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청년층의 수요에 맞춰 지자체의 청년문화 영역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축제를 통해 지역 청년인력을 양성해 가는 세계청년축제의 목표에 깊은 공감을 하며 축제의 취지, 추진과정, 참여청년과 이후 활동까지 자세히 살펴봤다.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도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세계청년축제의 후원으로 나서 축제장에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광주시와의 협업관계를 공고히 했다.

부산문화재단 권영훈씨는 "광주 청년축제는 청년들의 역량을 밀도있게 응집하는 힘을 가진 것 같다"고 소감을 피력했으며, 전북도의 장은정씨는 "광주의 사례를 보면서 전북에서도 청년축제를 준비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다"고 말했다.

안현종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팀장은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광주시는 문화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청년층의 수요에 맞춰 지자체의 청년문화 영역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토지, 6000평

##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